

2024년 10월 13일(주일) 제1704호

#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 2024 '사랑 나눔 장터'에서 만나요!

풍선아트 봉사자를 찾습니다! / 기증품을 기다립니다!

10. 18(금)부터 10. 19(토) 양일간 '사랑 나눔 장터'를 개최합니다.

### 1. 풍선아트 봉사자를 찾습니다

대치1동에서 주최하는 제1회 한티문화축제 (19일/토 오후 : 12-4시)가 한티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때 풍선아트로 우리 교회의 사랑을 전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김승록 장로나 예완식 안수집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 성도 여러분의 기증품을 기다립니다

귀중품, 애장품, 그리고 중고 물품 등 사용 가능하나 버리기 아까워 보관하고 있는 많은 물건들의 기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문화교실 24년 가을학기 모집

서울교회는 문화나눔, 말씀에 기반한 기독교 문화의 형성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리더 양성 문화를 고취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린 교회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1. 학기운영 : 클래스당 3개월 단위 10주 코스
2. 24년도 가을학기: 10. 19일(토)-12. 22 (주일), 10주
3. 운영비: 각 학기당 90,000원 (10시간 기준, 색소폰 반은 자체 운영)
4.   는 신설강좌입니다.

5. 클래스 특성에 따라 개강/종료일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서울교회 교회학교 학생 수강 시 수강료의 50%를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7. 문의 및 신청: 남재은 집사, 교회사무국
8. 구글신청서 양식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악기	클래식기타(기초반)	주일	10:15-	10주	B101	장운식 집사	
	클래식기타(중급반)		12:40-				
	통기타		12:30-				
	베이스기타	토	11:00-		505	박민서 집사	
	드럼	토	11:00-		601	한도연 선생	
	색소폰	토	14:00-		10주	B101	정인주 단장
	핸드벨	주일	14:30-		10주	402	송재월 권사
	피아노	토	9:30-		10주	502	양경실 집사
성악	즐거웁 성악교실	토	11:00-	10주	503	신모란 집사	
미술	비단부채에 피는 꽃	목	15:00-	5주	704	유은경 집사	
건강	매트 필라테스	토	13:00-	10주	702	박재현 선생	
댄스	조이 워십(한국무용)	월	13:30-	10주	702	조경숙 권사	

# 기도가 먼저라!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웨스트민스터홀

2024년 사명자대회

#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4-25)

## 성경읽기표 수거



매주 전교인성경읽기를 하시는 성도들은 순례자 6면에 게재하는 성경읽기표를 작성하여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24 사명자대회본부(본부장 : 이민호 장로)는 참여한 성도들과 우수다락방에게 시상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

행 8:1-8



손달익 위임목사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20).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공동체에 성령이 감람하신 후 그 공동체에는 교회의 형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용어는 5:11에 처음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믿는 사람들(2:44), 믿는 무리(4:32)’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며 점차 조직화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인 공동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행 2:44). 여기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다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의미이며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5:11부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교회는 거칠 것이 없이 전진했습니다. 제자들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켰고 말씀을 듣고 주께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 갔습니다. 초대 교회는 이런 외적 성장뿐 아니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영광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면서 진정한 영광의 시대가 열렸지만 초기 초대 교회의 영광은 극도의 수난과 함께 찾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역사는 오히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1. 다시 세상 속으로 가는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는 말 그대로 폭풍처럼 질주하며 예루살렘과 유대 교관자들을 뒤흔들었습니다. 성전 미문의 치유사건과 사도들의 활동은 교회 전체를 감동시켰고 교회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들이 모인 곳에는 성령이 중만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전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생산했는데 그것은 교회 내부 일에만 지나치게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가야 하는데 그들은 너무 교회 일이 재미있고 분주하여 바깥세상으로 가야 할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또 경쟁적으로 내부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내적 경쟁과 투쟁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 사건도 순수 신앙에 의한 헌신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심에서 비롯된 자기 과시 욕구가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제 사건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의 파벌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내부 문제로 몸살을 앓는 와중에 스테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생겼고 이어진 박해로 교회는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과적으로 교회를 다시 세상 속으로 흩어져 나가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또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으로 가면서 진정한 선교적 교회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교회는 자주 영적 전쟁의 전선을 교회 내부로 끌어내릴 때가 있습니다. 내적 권력 투쟁과 부패현상 등에 몰두하면서 진정한 전선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합니다. 교회는 타 종교와 영적 대결을 해야 하고 세

속주의 물결과 대응해야 합니다. 전 세계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을 분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내부 문제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내부 문제에 골몰하면서 사명을 망각하면 어떤 공동체도 존속이 어렵습니다.

### 2. 장벽을 돌파하고

스데반의 순교는 끔찍한 사건이었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노골적 위협과 협박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은 위험한 예루살렘에 남아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은 모두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를 비롯한 전도자들은 천년의 장벽을 넘어 사마리아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장벽을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교회는 너무나 많은 장벽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파, 전통, 문화 등의 차이로 교회들 사이에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또는 민족들 사이의 역사적 또는 이념적 갈등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신학화하거나 이념화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회와 교회 사이에 장벽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가 역동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장벽들을 우리는 스스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했지만 교회는 단 한번도 박해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원수처럼 대하지 않았습다. 오히려 그들이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벗었으면 입히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장벽을 허물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조용히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 3. 도시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

사마리아에 내려간 빌립 집사 일행의 선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말씀에 감동되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여러 면에서 슬픔과 차별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도시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버려진 사람들처럼 여겨졌고 상종 못할 죄인들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이라는 상처와 열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 되신다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이제는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는 주님의 말씀은 그들을 환호하게 했습니다. 복음은 천 년의 영적 질고를 벗어던지게 했고 도시 자체를 기쁨의 도시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해답임을 발견할 때 삶의 기쁨과 희망이 나타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의 우선 순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새롭게 되고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아무리 제도가 개혁되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에도 온갖 종류의 악한 영들의 시험과 훼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즉시 사마리아로 급파된 베드로와 요한은 강력한 영적 능력으로 악한 자들을 제압하고 복음을 지키고 순수한 성령의 역사를 보호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모든 힘을 다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시작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 2024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장터



**이겸손 안수집사**  
(판매관리부장)

2024 사랑 나눔 장터가 이번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사랑하는 교우들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친교와 화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외부 업체들의 참여보다는 교인들의 나눔의 공간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각 교구별 특색 있는 상품들이 준비됩니다. 수년에 걸쳐 이미 검증되어 있는 권사님들의 정성이 담긴 맛있는 반찬들과 8층 식당에

서 준비되는 먹거리 장터,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지역 교회들의 특산품들이 있으며 우리 교회 성도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증되어 서울 교회의 바자회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은 최고 품질의 침구류가 올해도 준비됩니다.

특히 한 가정 최소 한 가지 아이템씩 쓸만한 물건이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상품들을 교회로 가져다주시면 풍성한 나눔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미 스포츠 의류 수백 벌이 기증되어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류는 물론 운동기구, 가전제품, 학용품, 도서류 등등 기증품의 제한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나누고싶은 따뜻한 마음만 있으시면 가져오시면 됩니다. 판매를 희망하시는 가격으로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해 드리고 불거리, 재밋거리 있는 신나고 사랑 넘치는 나눔의 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온도계 기부 행사도 시작되었습니다. 금액의 기준 없이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여진 우리의 사랑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서울교회의 온전한 회복의 모습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4년 10월 18일(금)-19일(토) 양일간 진행되는 사랑 나눔 장터에 기증품으로, 기부금으로 봉사로 꼭 참여하셔서 초대교회 같은 부흥과 사랑과 감동을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돌성경	정문 과일 주스 식재			
		8교구 떡류	3교구 전어물 (김, 미역류)	플리마켓 (본부상품 토요일 교회학교구가)
중고장터(의류, 헌 옷)				
스포츠 의류(본부)	파배기	4교구 파배기, 김, 밤, 찹기름, 찹깨	9교구 김치	1교구 사과 배 본부 단감

사무국	그릇류 (본부)			웨민홀 이불(본부)
	여성 위생용품 (본부)			
도서실	양념 소불고기 (본부)			소망부 (창고)
	사골곰탕 (본부) 오미자	(유리문 사이)		
		↑ 정문		과일 주스

▶ 2024 사랑 나눔 장터 교회 앞마당, 1층 배치도

이외에도 8층에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실상부 세계적인 한지 작가 전광영 집사님께서 오는 12월 개인 전시회를 앞두고 좋은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미술 부문 대통령상을, 2001년 국립현대미술과 올해의 작가상, 2022년 비엔날레 전시회의 초대 작가로 그 명성을 날리며 전광영 집사님의 작품은 지금 전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광영 집사님의 작품이 미술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첫 사례로 물납 허가를 받아 바로 얼마 전(10월 10일) 작품 'Aggregation 08-JU072BLUE'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수장고에 반입되었음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간 서울교회에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임마누엘 찬양대, 청년부 등을 섬기시며 분쟁 중에도 교회에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신 전광영 집사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기대 합니다.

### 2024 사랑 나눔 장터

## 기쁜 마음으로 드린 헌물



**유태서 안수집사**  
(8교구)

고 이종윤 원로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때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 부지를 찾던 우리 교회는 2008년에 영원모자 소유 청평군 하천리 455 일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사회복지센터를 위한 아가페타운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고 이종윤 목사님은 아가페타운 건축의 첫 삽을 뜨시며 “서울교회는 설립 13주년을 맞이하여 젊은이답게 큰 발자국을 내딛는 교회가 되기 위해 탈북난민, 장애인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풍요 속에 울고 있는 자들의 벗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당시 교회는 적립된 헌금이 너무 적어 전교인이 기도하며 아가페타운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이에 우리 가정도 아가페타운 건축 헌금에 참여하고자 하였고, 어머니 고 이영자 권사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를 정리하시면서

저와 동생 유은경 집사를 불러 선친 고 유윤진 장로님(서울교회 2대 장로)께서 1991년 환갑을 맞을 때 당시 재직하고 계셨던 한양대학교의 동료 교수님들이 선친께 선물로 드린 금명함과 함께 금열쇠를 보여주시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저와 동생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에 목사님을 찾아뵙고 두 가지를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당시 고 이종윤 목사님이 이 명함은 정말 귀한 것이고 두고두고 자손들이 기념할 것인데 헌물로 드려도 괜찮냐고 어머니께 물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헌물은 교회 분쟁으로 현금화하지 못하였고 다행히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불상사 없이 지금까지 잘 보관되어 왔고 올해 바자에 판매 물품으로 올리고 저희가 시가대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사랑의 바자를 맞아 사무국에서 보관 중이던 헌물들을 정리하면서 다시금 돌아가신 부모님과 그분들의 교회 사랑, 그리고 오늘의 서울교회가 있기까지 모퉁잇돌이 되어주셨던 교회의 많은 어른들의 눈물 어린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 이번 '사랑 나눔 장터'에 준비된 상품들입니다



금 명함과 금 열쇠 : 유태서 안수집사, 유은경 집사, 유혜련 집사, 유사라 집사 헌물



돈디 코리아의 포근한 침구류 : 최근우 집사



스포츠의류 : 김경숙 집사



수제 배추김치, 총각김치 각각 5kg



자일리톨로 만든 식혜



닥터쥬르 샴푸, 화장품



완도산 미역과 다시마



방앗간 들기름 참기름



과일주스



불고기



밤



꽂배기



햇과일들



코렐우즈 트리오와강키친물 티크우드도마



사골국



도심리마을의 오미자청, 오미자 당절임



유기농 본 생리대



구이 김의 결정판 광천김

\* 더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컷이라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5강 : 사도신경-죄사함, 부활, 영생(1)

### 몸의 부활과 영혼불멸 가운데 무엇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머리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제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활의 전제는 몸의 죽음입니다. 불멸이라는 개념은 부활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기 때문이고, 또한 불멸이라는 속성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특성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몸의 부활과 영혼불멸이 양립할 수 없는가?”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다양한 신학적인 논의들이 있지만 결론만을 이야기하면, 영혼과 몸이 통합된 인격개념으로 인간을 이해할 때 영혼불멸과 부활 신앙의 통합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부활 신앙의 핵심이 모든 인격은 죽음을 넘어 존속한다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만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셨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표현처럼,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인 동시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 56문 :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이신칭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죄사함”에 이르는 구원의 방편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신칭의라는 표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인데, 흥미롭게도 죄사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6문에 대한 답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사함과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보면 더 좋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죄사함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가, 은혜를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에게 있는가, 성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성자 하나님에게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죄사함을 기억 그리고 은혜와 연결시킵니다. 죄사함의 첫 번째 의미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의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온 인류를 대신하는 속죄제물이 되시고 피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결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죄사함의 두 번째 의미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선물로 주어진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말”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표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교리사에서는 17세기 루터파 안에서 ‘칭의’를 지지하는 그룹과 ‘의화’를 지지하는 그룹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칭의와 의화가 어떤 차이가 있기에 논쟁을 벌였던 것일까요?

이른바 ‘칭의’는 ‘법정칭의(justificatio forensic)’라고도 하고 ‘법정적 이신칭의’라고도 하는 개념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합니다. 법정적 이신칭의란 법정에서 재판장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나서 판사가 무죄를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데, 칭의의 개념에 비추어보면 그리스도인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 됩니다. 말하자면 내면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의 겉옷을 입은 상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의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 안에 일어나는 내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주입되어 의롭게 된 것을 말합니다. 칭의와 의화의 차이는 내면의 변화에 있습니다. 칭의나 의화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구원받았으면 되었지 뭐 그렇게 따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이제 그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무죄판결을 받고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면이 변화되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놓고 보면 칭의든 의화든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칭의가 내면의 변화가 없이 옷만 갈아입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면, 오히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것인데, 전제가 간과되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개역개정)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지,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고, 믿음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야 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동시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적이 없어 여전히 자아가 살아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버리는커녕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믿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9교구 김문범 집사 • 이주희 집사 득남  
아기 이름 : 김도준  
(2교구 김영표 안수집사 • 권소희 권사 손자  
9교구 나기태 권사 외손자)

-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김민우 오원준 감정헌 구민우 허정  
이유찬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식사 제공



- 박미라 목사 • 손주찬 목사 (목사 안수 받음을 감사드리며)

70인전도대 10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9. 29	자원자	스데반회	10. 2	도르가, 루디아, 뵤뵤
10. 6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10. 9	한글날
10. 13	자원자	바울, 엘리야	10. 16	한나, 에스더(오후 2시-3시)
10. 20	자원자	모세	10. 23	리브가
10. 27	자원자	이삭	10. 30	권사회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2. 2024년 사랑 나눔 장터를 통해 성도간의 사랑과 이웃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4대 위임목사님 청빙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3.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며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매체인 성경통독			
10월14일	월	막 15-16	왕상17	골4	겔47	시103
10월15일	화	눅 1	왕상18	살전1	겔48	시104
10월16일	수	눅 2-3	왕상19	살전2	단1	시105
10월17일	목	눅 4-6	왕상20	살전3	단2	시106
10월18일	금	눅 7:1-8:21	왕상21	살전4	단3	시107
10월19일	토	눅 8:22-9:62	왕상22	살전5	단4	시108,109
10월20일	주일	눅 10-11	왕하1	살후1	단5	시110,111

사명자대회 기간 중 성경을 읽으신 성도들은 절취선 따라 잘라서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부목사

장석남 김익환 현종필 최중국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흥기

◇ 교육목사

박미라 손주찬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태연

◇ 준전임전도사

전진석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성선혜 조하영

◇ 협동목사

양정호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602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홈페이지QR코드



■ 유튜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